



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히 보내 드리우리다
영변에 약산 〱 진달래꽃 〱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
가시는 걸음걸음 〱 놓인 그 꽃을 〱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
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〱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

